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음 4월 17일) 제15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야호~ 시원한 물이다”

연일 전국적으로 낮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폭염주의보가 내린 지난 20일 오후 어느 광장에서 한 외국인 소년이 분수에 손을 대 즐거워하고 있다.

## 청년실업문제 해소 나선 전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

김승수 시장 “전국협의회 등과 연대 여야 당론 채택토록 집중할 것”

다른기관·기업에서도 신규 채용시 같은 비율 채용 의무화 요구키로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은 필요하다”면서 “전주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 등과 연대해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2’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6% 등 전국 평균 13.3%에 머물러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지난해 국립원예특작원이 지역인재 151명을 채용해 가장 많았고 국립식량과학원이 106명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는 국민연금공단이 40명, 한국전 기인전공사 36명, 한국국토정보공사도 32명을 지역인재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용을 위해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먼저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14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설득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혁신도시 외 공공기관·기업(300인 이상)에서도 신규 채용 시 해당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를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시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품집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구문제,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타 지자체, 정치권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월 1회 민생점검회의’ 합의

여야정 “성과연봉제·누리과정 문제 등 논의키로”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월 1회를 원칙으로 민생점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월 1회를 원칙으로 필요할 때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음 회의는 6월 둘째 주에 하기로 했다”며 “굳이 이런 회의 체보다는 설명장 집이나 좀 편안한 자세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정부 측에, 특히 갑압 등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우선 금년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금년 예산은 시도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구조조정 문제는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의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성주 기자

## 최고 춤꾼들의 옥석가리기

###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성료

국내 최고 비보이들의 한바탕 축제인 ‘제10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본선대회가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6시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전주비보이그랑프리대회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들이 참가해 국내 최정상 자리를 놓고 격돌하는 대회다. 이날 결선대회에서는 30개 참가팀 중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8개 팀이 화려한 비보이 댄스와 수준 높은 공연으로 공연장을 광채한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본선대회 수상자는 영광의 우승상과 함께 1등 1,000만원, 2등 600만원, 3등 2등 각 300만원 등 총 2,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대회에서는 특별공연으로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 우승으로 대한민국에 비보이 열풍을 일으킨 ‘다스트로

원’과 합합가수 산이와 가수 제시, 레이저퍼포먼스의 최강팀인 PDI의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전북대삼성문화회관 야외마당에서는 부대행사로 전주비보이그랑프리 10주년 기념 그래피티 행사가 펼쳐져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다. 우송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난 2007년 첫 선을 보인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10회째를 맞아 자라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비보이 대회로 자리매김하면서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전통과 역동적인 젊음이 공존하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전주에 오면 언제든 지 B-boy 공연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 특화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 매일 INDEX

- 2면 탄소법 통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은?
- 4면 ‘물자가 살인’ 해마다 증가추세
- 5면 도내 초등학교교실 예산편성을 하위
- 16면 익산 서동축제 미리보기

정읍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 우리농산물

## 정읍 단풍미인 쇼핑몰

http://www.danpoongmall.com

정읍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계절별 추천 농축산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단풍미인쇼핑몰 이용시 기본혜택**

1. 정읍시청 택배비 100% 지원,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택배 이용 무료배송
2.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3. 매주 화요일 딱 하루! 다양한 농축산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고객만족전화  
080-535-4345(무료) / 063-532-4345

네이버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 해 보세요